

맛·색깔 좋은  
복분자 명물

장성 복하면 갈마마을

장성군 복하면 대흥리 갈마마을은 일명 대정마을로도 불린다. 장성 북하면에서 담양읍으로 가는 중간에 자리잡고 있고 차량 2대가 교차하기 힘들 정도의 좁은 다리를 건너야 마을로 들어갈 수 있다.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될 만큼 한적한 시골마을로 기다랗게 펼쳐진 계곡을 따라 30여 가구가 살고 있다.

김씨의 집을 중심으로 윗 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뉘며 마을 사람들은 아랫마을을 갈마마을, 윗마을을 하남마을로도 부르고 있다. 최근에는 전원주택이 한 두채씩 들어서고 있다.

이곳은 장성에서도 복분자가 많이 나 복분자마을로 이름이 높다. 장성 복분자는 복하면과 복이면을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40ha가 재배됐으며 이 가운데 7ha가 갈마마을에서 생산됐다.

갈마마을 복분자는 수량이 평균 3년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으며 올해는 생산량 전망을 보해양조에서 지난해 대비 5.3%인 상원 kg당 6천원에 수매하기로 했다. 특히 과실이 단단하고 단맛과 신맛이 알맞게 섞여 맛이 좋으며 색깔과 향기가 독특해 인기가 높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김신남씨 부부가 자신의 텃밭에서 상추를 수확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



김신남(왼쪽)씨가 부인 조정숙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베리안 허스키종 애견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김씨네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진돗개 등 개 4마리와 닭 30마리, 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을 키우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컨테이너 음악실 만들어 팝음악 맘껏 즐겨요”

장성 갈마마을 김신남·조정숙 부부

김신남(56)·조정숙(여·55)씨 부부는 장성군 복하면 대흥리 갈마마을에서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에 정착한 것이 2004년 4월이니 어느덧 5년째에 접어들었다.

이만하면 전원생활을 '즐긴다'는 말보다는 '생활이 됐다'는 표현이 맞을 듯도 하지만 김씨에게 여전히 농촌생활이 즐겁고 할일이 많은 놀이터처럼 보였다.

농촌생활을 만끽하는 김씨의 흔적은 집안 곳곳에 그대로 배어있다. 700여평 부지로 전원생활 규모로는 비교적 큰 편이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빈틈없이 잘 짜여진 공간이란 느낌을 받게 된다.

목재 판넬의 양옥집인 본채를 중심으로 앞쪽에 텃밭이 있고 본채 옆에 컨테이너 박스로 지은 음악감상실과 차를 마시거나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원탁이 놓여있는 공간까지 김씨의 취향을 한껏 살린 구조다.

전원주택은 여유있는 은퇴자나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여 지은 그럴싸한 집이거나 부모의 집 등을 개조해 만든 평범한 농가주택 등으로 양분되는

특징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씨부부는 전원생활의 맛을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10여년전에 이미 부지를 매입했고 이후 꾸준히 드나들며 이웃 주민들과의 친목을 다진후 집을 지을때는 거의 모든 것을 자신들의 손으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출신인 김씨가 장성에 정착하게 된 것은 처남이 이곳에서 주유소를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어린 시절부터 전원생활을 꿈꿔온 김씨는 자연스럽게 장성을 찾게 됐고 경치 등 자연환경과 순박한 전라도 사람들의 인상에 끌리게 됐다.

한때 경기도 양평에 자리를 잡을까도 생각했지만 이

곳으로 마음을 정한후에는 곧바로 땅을 사들인후 조립식 건물을 지어 처남에게 관리를 맡겼다. 전원생활을 위해 본격적으로 집을 지을때부터는 설계부터 김씨가 손수했다.

김씨의 손기술은 가히 발명가 수준이다. 음용수를 제외한 생활용수는 뒷산에 물탱크를 묻고 지하호스로 끌어다 쓰고 있고 전선통을 이용해 만든 원탁밑에 절구통을 받치고 가운데를 뚫어 바베큐 세트를 설치했다. 껍질을 벗긴 편백나무 원목은 모기향으로 활용하고 오토나루 속을 파내 처마에 매달아 놓은 새집에선 얼마전까지 새들이 부화해 자연으로 돌아갔다.

조씨는 이런 남편을 '환경친화형 전원주의자'라고 말

2004년 4월 서울 직장생활 정리하고 정착  
700여평 부지 목재 판넬 양옥집 손수 설계  
손재주 살려 새 집·바베큐 세트 등 만들기도

했다. "전원생활 5년째면 싫증이 날만도 한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볼수 없어요. 주변에 있는 것으로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어요" 조씨는 그러면서 잔디깎기용 의자라며 어린이용 세발자전거를 보여줬다. 김씨의 또다른 취미는 음악감상.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음악감상실에는 오래된 LP음반만 3천장에 달한다. 주로 70년대 중반의 팝음악이 많다. 김씨는 "젊었을때부터 음악을 즐겨 듣다보니 취미가 됐다"며 "가수중에서는 밥달린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다.

요즘에도 LP판을 사러 서울 회현동에 가끔씩 들른다는 그는 "이웃들 의식없고 좋아하는 음악을 소리높여 듣는 것도 전원생활이 주는 기쁨"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어떤 면에서 농촌생활이 도시생활보다 인간관계가 더 힘들다고 설명했다. 도시와 달리 주민들과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평소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씨는 또 전원생활의 가장 큰 장점으로 먹을거리를 꼽았다. 광우병이나 조류독감이다해서 온 나라가 먹을거리로 떠들썩하지만 이곳에서는 자신의 손으로 가꾼 무공해 식품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변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발부모와 당선회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관: 02-221-0100, 02-221-0101, 02-221-0102, 02-221-0103

보람상조와 함께 일 새가족을 모십니다

보람상조

010-9566-8114